

# 겨레말큰사전

제31호

누리판

겨레의 창 · 겨레말 편찬 현장 · 겨레말 살이 · 겨레말 소식

## ■ 겨레의 창

### 겨레말큰사전의 새어휘들

\_ 정도상 / 겨레말큰사전 상임이사

어떤 문명이든 그것이 다른 문명에 자연과 역사를 통해 물려받고, 부여한 천분을 근거로 정치적, 지적, 도덕적 강압을 행사하는 한, 인류를 위한 평화와 희망은 있을 수 없다.

한 민족의 문화적 특수성을 부정하는 것은

그 숭고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 1993년 말리 대통령, 알파 우마 코나레 -

어떤 문화든 고립된 섬일 수는 없다. 섬에 갇혀 혹은 높은 성을 쌓아두고 그 내부에서만 생성되고 발전된 문화란 인류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문화는 섬을 떠나 바다로 항해했으며 성을 넘어 길을 따라 이동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가 소위 문화라고 부르는 인류의 재산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도 끊임없이 문화는 이동하고 있으며 다른 문화와 다양한 형식으로 섞이고 있다. 문화의 이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인류가 탄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언어도 마찬가지였다. 한 지역 혹은 한 민족의 언어 또한 끊임없이 다른 언어와 섞이면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 불변의 언어, 고정적이고 정체된 완벽한 언어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말은 중국어와 만주어에 영향을 받았고, 일본어에 영향을 끼쳤다. 나중에는 일본어의 영향을 되돌려 받기도 했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말 속에는 주변 지역의 다양한 언어적 영향이 숨겨져 있게 되었다. 기록을 통해 보듯이 언어는 탄생, 성장, 소멸의 길을 걸어왔다. 언어는 생물처럼 살아 움직였다. 어떤 언어의 무덤 속에는 여러 천년 동안 사용했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어휘가 바닷가에 쌓여 있는 조개껍질만큼이나 많이 담겨 있다. 반면에 어떤 언어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어휘의 창고 속에서 끊임없이 호출되기도 한다. 그러한 호출을 통해 어떤 어휘들의 소멸의 위기를 넘기고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받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언어 현실이기도 하다.

한국어를 포함한 세계의 모든 언어는 내적, 외적인 힘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부정하고 표준의 틀 안에 언어를 고정하는 것은 언어의 생물성과 다양성을 포기하는 것이며 언어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장애라고 생각한다. 『겨레말큰사전』은 명시적으로 선언하진 않았지만, 언어의 생물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남북 언어학자들의 암묵적 합의가 있기에 첫발을 뗄 수가 있었다.

정치의 최종단계는 언제나 문화로 발현된다. 폭력적 갈등과 군사적 충돌, 압제와 부당한 권력의 행사, 비민주성과 그에 따른 인간발전의 심각한 장애를 정치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해결은 사실상 시작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해결은 언제나 불완전한 상태로 남겨져 있기 마련이다. 그 불완전성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문화의 기능이었다. 문화는 갈등과 충돌 그리고 압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상처를 인간발전과 사회발전의 지렛대로 삼아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롭게 함께 어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는 '다르다'는 것에 근거한 가치(진리, 사상, 주의 주장, 견해를 포함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해야만 한다. 그것은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국가의 표준어가 그 국가 안의 다른 언어를 '비표준어'라고 억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표준어 때문에 여러 천년 동안 사용해온 경상도 지역의 어떤 어휘가 하위언어 취급을 받고, 충청도 지역의 어떤 어휘가 사투리라고 낙인찍힌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왔다. 그 자체로 수준이 낮고 배타적이며 하위 계층만 사용하고 질이 떨어져서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언어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어휘들이 국가에서 발간한 사전이나 국가가 공인한 교과서에서 추방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겨레말큰사전』은 한반도 남쪽 내부는 물론이고 북쪽 지역까지 포함하여 언어적 차이를 이질적이고 수용 불가능한 것, 표준어를 위해 소멸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오히려 그 차이에서 긍정적 가치들을 발견하고, 나아가 그 차이에 생명력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여기에는 그 어떤 정치적 의도도 개입되지 않았다. 오직 언어 자체의 생물과 같은 생명력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겨레말큰사전』의 새어휘들은 다원주의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어휘가 발현시켜온 결속에는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 지역에서 여러 천년 동안 살아온 민족 구성원들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삶과 문화의 측면에 무너지거나 담겨 있다는 것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객관성과 보편성, 표준화는 언제나 진리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절대성을 요구해왔다. 인식과 윤리의 절대성, 객관과 표준의 절대성은 때때로 자가당착과 문화적 폭압을 생산해냈다. 인류의 역사가 수많은 곳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겨레말큰사전』의 새어휘들은 절대성의 폐허에서 피어난 작은 꽃들이다. 그 꽃들의 향기를 함께 나눌 날이어서 오기를 소망해본다.

#### 『겨레말큰사전』 새어휘란

『겨레말큰사전』에서 새어휘는,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조선말대사전』(1992)에 실리지 않은 모든 어휘를 가리킨다.

새어휘 조사는 문현어, 지역어, 현장어 등 세 분야로 나뉘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위원회는 '우리 생활 현장에서 쓰고 있거나 썼던 말 가운데 민족 언어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어휘·의미 자료를 현장 조사를 통해 빠짐없이 조사' 한다는 원칙에 따라 약 10만여 개의 새어휘를 발굴할 예정이다.

# 겨레말큰사전

제31호

누리판

겨레의 창 · 겨레말 편찬 현장 · 겨레말 살이 · 겨레말 소식

## ■ 겨레말 편찬 현장

### 2011년 집필·새어휘 사업 시작

지난 2월 겨레말큰사전 <2011년 사업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편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업회는 올해 남측원고 집필과 교열, 문헌 자료 등을 통한 새어휘 조사, 말뭉치 정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에 사업의 첫 단추로 2011년 집필·새어휘 사업 응역자 연수를 2월 24일(목)~25일(금)까지 진행하였다.

첫날인 24일에는 정도상 상임이사의 인사말에 이어 <겨레말큰사전> 특징 소개, <겨레말큰사전> 형태 표기와 <종합집필요강>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또한 <겨레말큰사전> 원고 작성과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원고집필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법과 실제 원고 작성 방법을 시연하였다.

둘째 날인 25일에는 <종합집필요강> 세부 사항 설명과 각자의 집필량과 결과 제출 등 실제 집필 작업에서의 주의 사항 등이 교육되었다.

집필·새어휘 사업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겨레말큰사전

제31호  
누리판

겨레의 창 · 겨레말 편찬 현장 · [겨레말 살이](#) · 겨레말 소식

## ■ 겨레말 살이

### 3기 남측편찬위원 위촉 및 겨레말큰사전 형태 표기 위원회 명칭 변경



편찬사업회 이사회는 2월 20일부로 홍종선 고려대학교 국문과 교수 등 10명을 '3기 남측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하였다.

현재 «겨레말큰사전»은 편찬사업 50%를 넘긴 중요한 시점으로, 이번에 위촉된 3기 편찬위원들은 사전 원고 집필과 새어휘 조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이후 개최될 북측과의 공동회의를 통해 «겨레말큰사전»이 성공적으로 편찬 될 수 있도록 더 힘을 쓸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회는 «겨레말큰사전»에 적용할 어문규범을 논의하던 남측의 '단일어문규범작성위원회'의 명칭을 '겨레말큰사전 형태 표기 위원회'로 변경하였다.

이는 현재 남북공동편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규범이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규범으로 제한되며, 남북의 '국가 표준 규범'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이번 명칭변경은 작년에 개최된 2차례의 <전문가토론회>에서 제기된 학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49차 남측편찬위원회에서 편찬위원들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 겨레말큰사전

제31호

누리판

겨레의 창 · 겨레말 편찬 현장 · 겨레말 살이 · 겨레말 소식

## ■ 겨레 말 소식

### ‘제25차 통일시민포럼’ 강연

지난 1월 20일 통일시대준비위원회(이사장: 정대철 전 국회의원)가 주관한 <제25차 통일시민포럼>에서 ‘통일겨레 말,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사업회 한용운실장의 강연이 있었다.

전직 국회의원, 장관, 일반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강연에는 ‘남북의 언어 차이’와 ‘남북언어의 통합 방안’ 등 남북 언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돋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강연을 마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북의 언어와 <겨레말큰사전>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문들이 많아 남북 언어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

